

News

재점화한 대환대출 플랫폼 논의...은행권 '부글부글'

머니투데이

금융위원회, 금융사들에게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 관련 의견 청취 중... 업계에서는 작년과 같이 당국이 조만간 업권별 간담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소통할 것 예상
다만 은행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도입에 난항 예상...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시작으로 대부분 상품이 빅테크 플랫폼에서 거래되면 은행은 단순 제조업자 될까 우려 제기

“여신자금 확보하자” 은행들 특판 경쟁... 신한 등 연 3~4% 예·적금 선보여

파이낸셜뉴스

은행권, 연이은 특판 행렬 진행 중... 가장 공격적인 금리 제시한 상품은 신한 40주년 페스타 적금... 만기 10개월짜리로 매주 납입 여부에 따라 최고 4.0% 금리 적용
여신에 필요한 자금 저비용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지금이 소비자 예치금 끌어모아 운용하기에 적합한 시기... 주담대 금리 낮춰 가계대출 수요 반등에도 나서...

카카오뱅크 임원진, 자사주 1만1400주 추가 매입 행보

이데일리

카카오뱅크, 지난 5일에 이어 임원 3명이 자사주 총 1만 1,400주 매입... 주주가치 제고 위한 책임경영 목적이라 설명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성장주 부진 우려에 고전 중... 7일 기준 증가는 31,750원

토스뱅크, 카드업계 반발에 ‘카드론 대환대출’ 잠정 중단

동아일보

토스뱅크, 고금리 카드론을 동사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비스 잠정 중단... 기존 고객 이탈 우려한 카드업계가 강하게 반발한 것이 영향
원래 5월 말 삼성카드 카드론 대상으로 서비스 시작해 이달부터 대상 카드사를 늘릴 계획... 카드사들은 카드론 정보 모으는 과정에서 보안 문제 등 문제 제기

특별 보험이 뜬다...지금은 '특약' 전쟁 중

뉴시스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획득 경쟁 치열... 타사와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 통한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
메리츠화재, 지난 1일 기준 암보험 상품에 업계 최초로 70세까지 유사암 납입면제 적용... 삼성화재, 이달중 CAR-T 치료 보장하는 암보험 상품을 선보일 계획

온라인채널 보험 가입, 처음으로 전화 가입 추월...절대강자는 삼성화재

아시아투데이

보험사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되면서 텔레마케팅 설계가 줄인 반면 사이버 마케팅에 힘주는 편... 자체 온라인 채널 강화로 향후 비대면 상품 가입 규모 더 증가 예상
올 1분기 국내 손보사들의 CM을 통해 모집한 보험료는 1조 5,532억원... TM통한 보험료보다 1,795억원 많은 규모... 점점 CM을 통해 벌어들이는 보험료는 많아지고 있어...

미래에셋증권, 대형사 첫 반대매매 추가 완하...11일부터 담보비율 130%

한국경제TV

미래에셋증권, 금융당국의 증시 안정화를 위한 반대매매 완화 조치 일환으로 오는 11일 신용 및 대출 담보유지비율을 130%로 인하하기로 결정
대형사 중 최초... NH투자증권과 KB증권 등은 내부적으로 조치 적용 여부 검토 중... 사측은 반대매매 유예 조치에 이어 담보비율 인하도 실행하기로 결정

예탁금 이용료율 인상 보류...‘버티기’ 들어간 증권사 어디?

더팩트

한국투자증권, 7일부로 예탁금 평균잔고 50만 원 이상 기준 예탁금 이용료율을 기존 0.25%에서 0.4%까지 올리기로... 키움증권도 0.25%로 상향 적용 계획
다만 아직 예탁금 이용료율을 올리지 않은 증권사도 있어... 자기자본 순위 상위 10개 증권사 중에서는 하나증권과 대신증권... 사측은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아 지켜보는 중 설명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